|  |  |
| --- | ---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공익법센터어필 (담당: 정신영 02-3478-0529/ [info@apil.or.kr](mailto:info@apil.or.kr)) |
| **제목** | [취재요청서] 6월8일 세계 해양의 날,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총 2쪽) |
| **날짜** | 2021. 6. 7. |
|  | |
| **취재요청서** | |
| 6월8일 세계 해양의 날,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해양 생태계와 어업 인권문제 대책 수립 촉구 | |

|  |
| --- |
| ■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정신영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발언1 :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황 및 원인 – 박현선 활동가 (시셰퍼드 코리아) * 발언2 :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 요구 – 김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발언3 : 불법어업 감시 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요구 – 정홍석 연구원 (시민환경연구소) * 발언4 :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 문제 및 대책 요구 – 조진서 캠페이너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창윤 활동가 (시셰퍼드 코리아) |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6월 8일(화) 청와대 앞에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바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세계 해양의 날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UN에서 지정되었습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에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해양쓰레기와 남획으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로 인한 피해, 남획을 포함한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파괴적인 어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